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즘과그외에세이들

엠마골드만

엠마골드만
아나키즘과그외에세이들
1910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1910 년

차례

서문	4
아나키즘 - 그것은진정무엇을옹호하는가	9
소수대다수	10
정치적폭력의심리	11
감옥: 사회적범죄와교화의실패	12
애국심: 자유에의위협	13
프란시스코페리와근대학교	14
청교도의위선	15
여성매춘	16
여성참정권	17
현대연극: 강력한급진사상의전파수단	18

현대연극: 강력한급진사상의전파 수단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mma-goldeuman-hyeondae-yeongeug-gangryeoghan-geubjinsasangyi-jeonpa-sudanhyeondae-yeongeug-gan>

서문

— 편집자주 —

이 글은 엠마 골드만이 1910 년 『아나키즘과 그 외 에세이들 Anarchism and Other Essays』 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의 서문이다.

한국어 번역은 『저주받은 아나키즘』 (김시완역, 우물이 있는 집, 2001) 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되었다.

엠마 골드만의 에세이들을 각각 편집하는 과정에서 서문을 별도로 하나의 문건으로 취급하게 되어 여기서 서문만을 옮긴다.

— 도서관 업로드자주 —

서문 밑에 별도로 도서관에 업로드된 나머지 에세이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여성참정권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mma-goldeuman-yeoseong-camjeonggweon>

여성매춘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mma-goldeuman-yeoseong-maecun>

청교도의위선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mma-goldeuman-ceonggyodoyi-wiseon>

21 년전나는위대한아나키스트존모스트 (John Most) 의연설을처음들었다. 당시, 아니그후오랜세월이흐른뒤에도너무나멋진말솜씨로, 집회에모여든수많은사람들중누구도그가던진이에언적인목소리를외면할수없었다. 그는오로지낡은옛신념들을벗어던지고아나키즘이라는새로운진리와그아름다움을보라고외치고있었다.

당시내가가장갈망한일은존모스트처럼말을잡하는것이였다. 그런갈망이있어서인지나역시대중들앞에서게되였다. 물론젊은청춘의순수한열정때문에가능한일이긴했지만! 가장중요한때는어린시절인것같다. 이때는가장가치있는삶의시기이기도하다. 그러나이소중한시기는정말짧은기간이다. 질풍노도의시기를잘넘기면, 미래의선전선동가로성장한다. 이때의마음은나약하고예민하기때문에이를잘극복하면성숙하게되고그렇지않으면주변의수많은환경에간혀좌절하게된다.

나는연설의영향력에대해지대한신뢰를보냈으나이제는아니다. 연설로사람의사상이나심지어감성조차각성시키기에도부적합하다는사실을깨달았다. 이런깨달음으로나는연설로하는선전은기껏해야사람들을잠자는상태에서흔들어깨우는정도의수단밖에안된다고인식하기에이르렀다. 연설식선전으로는지속적인인상을남기지못한다. 대부분의사람들은선정적인신문보도기사때문에, 아니면뭔가재미가있을거라는기대때문에집회에참석한다. 이사실은사람들의내면에뭔가를진정배워야겠다는충동이실제로는없다는것을입증한다.

글이라는표현양식은이와는완전히다르다. 진보적인이념에지대한관심이있지않다면그누구도성가시게진지한책과씨름하지않을것이다. 선전분야에서오래도록일을하면서한가지깨달은사실이있다. 아무리고

프란시스코페러와근대학교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mma-goldeuman-peuransiseuko-pereowa-geundaehaggyopeuransiseuko-pereowa-geundaehaggyo>

육을해도배우는자는자기마음속으로갈망하는것만수용한다는사실이다. 아직성숙하지못한아이들에게도이것이진리임을대부분의근대교육학자들이인정했다. 어른들의경우도마찬가지라고생각한다. 아나키스트나혁명가는음악가와마찬가지로만들어지지않는다. 오직할일은그런사상의씨앗을심는것뿐이다. 씨앗이살아성장할지여부는전적으로그인간의토양이얼마나비옥한가에달려있다. 물론뿌린지적씨앗의품질이좋아야하는것도사실이지만, 집회에서청중들은수많은비본질적인요소들에관심을빼앗긴다. 아무리웅변술이뛰어난연사라도청중들의소란스러움을피할수없다. 그결과청중들의마음을뒤흔들지못하게된다. 아니, 연사자신조차불만족스럽게된다.

저자와독자의관계는보다친밀하다. 그래서진정책이우리곁에있기를바란다. 입으로표현하는것에비해글로표현하면중요한것을잘제시할수있다. 그래서나는개인적·사회적중요성을지닌다양한주제에관한내생각들을한권의책으로묶어내고싶었다. 이책은나의 21 년간의정신적투쟁을고스란히대변하는것이다. 이책에담긴내용은수많은변화와내적교정을거쳐나온것이다.

내책을읽을독자들이내말을들은청중들만큼많을거라고낙관하는건아니다. 재미를느끼려는많은독자들보다정녕무언가배우고자하는소수에게이책이선택되기를바란다.

이책과관련해이이야기는꼭해야겠다. 몇가지점에대해미리설명하고자한다. 특히반드시제기될다음두가지의의에대해미리말해둔다. 그두가지는이책의여러장중 〈아나키즘〉 과 〈소수대다수〉 와관련된것이다.

“아나키즘하에서어떻게세상이운영되는지에대해서는왜말하지않는가?”이질문을나는수천번도더들었다. 아나키즘은무슨철제주물처럼고정된프로그램이나방법에따라일관되게움직이는것이아니다. 항상새로운세대에게과거는투쟁하고극복해야할짐으로남게된다. 적어도내가이해하는아나키즘은후손들에게자체의필요와조화를이루도록무언가특별한시스템을개발하도록요구하지는않는다. 어떤인종도외적제약조건에서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다. 그런데어떻게다가올상황에대해일사천리로적용될행위체계를정할수있다고가정하는가? 매순간신선한공기를호흡하는우리는정신을차려미래를옥죄는경향에맞서야한다. 과거와현재의쓰레기더미에서잘못된것들을성공적으로제거한다면후손들에게가장안전하고위대한유산을남겨주게될것이다.

독자들이범하기쉬운가장안타까운경향은한작품에서하나의문장을골라내그저자의이념이나개성을대변하는표준으로삼는다는것이다. 예를들어니체는‘초인’을믿었기때문에약자를증오한사람으로비난을받는다. 그러나여기서‘초인’에대한비전을어떤약자와노예도생기지않는안

전한사회상태에대한요청이라고판단한다면약자를증오한다는식의미
천한해석은생길수없다.

막스슈티르너 (Max Stirner) 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슈티르너
가“오직자기자신을위하라. 악마는뒤쳐진자를잡아간다”는식의개인주
의이론의사도라고해석하는것은잘못된해석이다. 슈티르너의개인주의
는위대한사회적잠재력이전적으로무시되고있다는점을담고있다. 그렇
지만만약사회가자유로워진다면그것은해방된개인들을통해자유로워
질것이다. 해방된개인들의자유로운노력으로그런사회를만드는것이
다.

이런인식하에나는이책 〈소수대다수〉 의장에서다음과같은이의의를
제기했다. 나는대중을창조적요소로보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의심할
바없이나는인민의적으로추방당할것이다. 인민을미혹하려는미끼로너
무나일반적으로유행하는그런선동적인수법을내가쓰느니차라리추방
당하는길을나는택하겠다. 억압받고낙담한대중의질병은실제로아주건
강한편이다. 나는오히려작금에일반적으로유행하고있는, 환자를죽이
지도않고회복시키지도않는그런미봉책의처방을거부한다. 사회적악을
다루는데지나친것은없다. 지나치고극단적이라는것이대개는참된것이
다. 다수에대해나는신뢰하지않는다. 나는개인의잠재력을신뢰한다. 개
인의잠재력이자유로워져공통된목적을위해개인간의결사가이루어질
때훈돈스럽고불평등한이세상에서질서와조화가이루어질수있다는희
망을품을수있다. 나의모든생각은이책이말해줄것이다.

엠마골드만

애국심: 자유에의위협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mma-goldeuman-aegugsim-jayueyi-wihyeob>

감옥: 사회적범죄와교화의실패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mma-goldeuman-gamog-sahoejeog-beomjoewa-gyohwayi-silpae>

아나키즘 - 그것은진정무엇을옹호하는가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mma-goldeuman-anakijeum-geugeoseun-jinjeong-mueoseul-onghohaneunga>

소수대다수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mma-goldeuman-sosu-dae-dasu>

정치적폭력의심리

<https://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emma-goldeuman-jeongcijeog-pogyryeogyi-simri>